

중동궤 유가 급등에 지역 주력산업 직격탄

여수산단 업체들 원료 수급난 '셋다운' 검토
여천NCC가동 65%로 낮춰 계약이행 차질
전장 장기화 시 車 수출 경쟁력 약화 불가피
무형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전수 조사

이란이 세계 원유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광주·전남 주력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더욱이 전남의 대동맥인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원료 수급난에 허덕이며 공장 가동 중단(셋다운)을 검토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직면했다.

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 경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화학 업계는 원유 수급 차질로 인해 '고사 상태'에 빠졌다.

핵심 원료인 납사(나프타)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가동률 조정에 들어갔다.

가장 심각한 입주업체는 여천NCC다. 이미 가동률 65%까지 낮춘 데 이어 지난 4일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원료 수급 불능으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공식 항복 선언이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가동률은 50% 아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현재 인도와 미국 등 공급망 다변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치솟는 물류비가 발목을 잡고 있다.

가동률 65% 수준인 LG화학 역시 사태 장기화 시 연간 생산량 80만 규모의 2공장 가동 중단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가동률 68%를 기록 중인 롯데케미칼은 4월 예정이던 1·3공장 정기 보수를 3월로 앞당기는



기름값싼 주유소 찾아 줄서는 차량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9일 광주 서구에 위치한 휘발유 1천700원대 주유소에 주유를 위한 차량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조영권 기자

'조기 셋다운'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GS칼텍스는 산단 내 납사 고갈을 막기 위해 대정비 기간을 당초 3월에서 5월로 연기하며 생산 최대화에 나서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

광주 주력산업인 자동차의 경우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지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 급등으로 해상·육상 운송 단가가 폭등하면서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중동 사태 이후 지역 중소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상 운송 차질이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해상 물류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계약 기간 내 컨테이너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선적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수출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물류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 해상 운임 상승과 운송 지연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유가 상승은 해상 운임 뿐만 아니라, 항공 운송비와 내륙 운송비까지 함께 끌어올릴 수 있어 수출입 기업들의 전반적인 물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지역경제계는 중동 사태의 장기화

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광주상의는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불안은 물론 해상운임과 보험료 상승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역 기업들에게도 시간차를 두고 부담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환율 변동이나 물류 차질, 원자재 조달과 유가 관리, 유동성 지원 등 종합적인 대응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정부와 지자체는 유류세 인하 확대와 긴급 금융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 지역 기업들이 대외 변수의 파고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격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만·양시원·안태호 기자

김영록 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등록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 지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황기연 행정부지사가 직무대행한다.

김 지사는 10일 무안 김대중 광장(전남 서부권), 광주시의회 브리핑룸(광주), 순천대학교 열린광장(전남 동부권)에서 잇따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와 비전을 만들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오늘 광주, 전남 동·서부권서

출마 선언...본격 선거 행보

주통합특별시장 주청사 위치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여론 수렴을 거쳐 정해야 한다"며 "아무리 훌륭한 결정이라도 특별시장이 혼자 마음대로 (주청사 위치를) 결정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비경선 이후 3명이 탈락하게 되는데 그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9·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8명의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하고 4월3·5일 본경선을 치른다. 이후 4월12·14일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양시원 기자

전남도, 수산식품산업 혁신 '가속'...1천52억 지원

가공·유통·수출·바이오 숲과정 연계

지원 체계 구축 고도화·경쟁력 강화

전남도가 가공·유통·수출·바이오를 연계한 수산 식품산업에 1천52억원을 지원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수산 식품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과 미래 산업으로 확장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수산가공 분야는 539억원을 들여 가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개선과 시설 현대화에 179억원,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 개선과 수급 구조 안정을 위한 김 건조기 교체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위생·안전 설비 확충 49억원, 산지가공 시설 설비과 위생시설 개선 127억원, 에너지 절

감형 가공설비 도입 16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유통·물류 분야는 226억원을 들여 산지 중심의 유통 기반을 확충한다. 마른김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구축 45억원, 호남권 소비지 분산물류센터(FDC) 조성 60억원, 수산물 대형·중형 저온저장시설 확충 99억원, 노후 수산시장과 위판장 시설 개선 14억원을 지원한다.

수산식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수출·바이오·문화를 아우르는 복합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한다.

국제마른김거래소와 연구개발(R&D) 시설, 냉동·물류창고, 가공공장 등을 갖춘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 준공 이후에는 수산식품 수출 거점으로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손영근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전남 수산식품 산업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미래 산업으로 자리잡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Today

'과도한 보상 요구' 해상풍력 좌초위기 6면

'시민 애환' 동네 목욕탕이 사라진다 12면

오예진 입단공은 텐텐양궁단 새출발 16면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주최 | 영암군
주관 | 영암문화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6 영암 왕인문화축제

4.4.토 - 4.12.일

전라남도 영암군 왕인박사 유적지, 상대포 일원

위대한 항해